



자재 시장 더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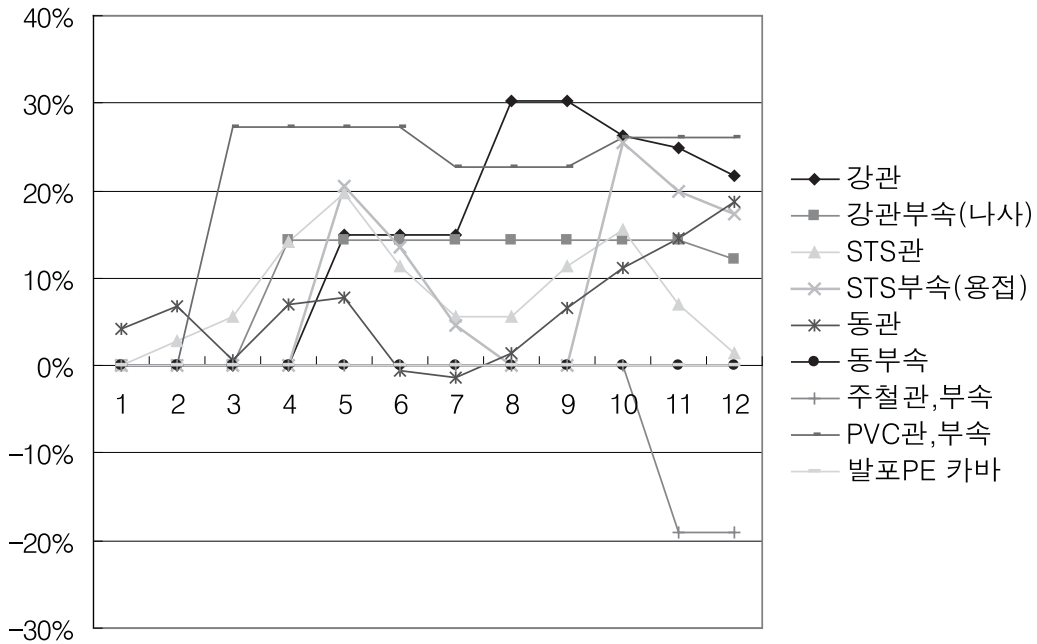
김현회 /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많은 사람들이 올해처럼 계속 춥고 눈이 많은 때는 없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해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한다. 실제로 기상청 통계를 보면 올해가 그렇게 눈이 많거나 추운 것도 아니란다. 역대 랭킹에서 기온도 적설량도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지난 일은 쉽게 잊고 지금 닥친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우리 설비건설 업계도 해마다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아니 앞으로 매해 힘겨운 상황이 반복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대면한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2011년 1월~ 2월 자재 동향)

자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12월 말부터 원자재 국제시세 상승으로 STS관 BASE 200원 인상되었고 LME 시세는 982원 인상 - 강관류 국내 내수시장 수요가 많지 않아 단가 변동폭 없음. 2월부터 소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농후함
강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으로 철 스크랩 시장의 가격을 이끌었던 터키, 대만 등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음 - 국내 제강사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높은 가격의 철 스크랩 구매. 국내 내수시장이 안정화 되면 단가 인상 확실 - 현재 대리점들의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일부 대리점 부도 가능성 있음(제강사 => 대리점 DC을 인하 실시)
동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LME 시세는 982원 인상된 10,860원으로 확정 - 구리 원자재 가격은 1월 둘째 주에 다소 주춤하였지만 강한 상승세는 계속 지속될 전망 - 주요 관련 제품들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부 반영한 자재들도 있으므로 충분한 대비 필요함
STS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STS관 BASE는 전월 대비 200원 인상 - 현재 니켈 국제 원자재 시세는 톤당 2만 6천 달러까지 인상이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유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므로 2월에 대략 200~300원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
구매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관류의 단가가 요동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연간 단가로 또는 3~4개월 단위로 단가를 고정하여 구매할 필요가 있음 - 실 투입 물량, 현금 결제 조건으로 판매사, 제조사 공동 미팅을 통한 단가 협상 전략도 유효함

2010년 주요 설비자재 가격 추이



(자료: 원켄네트웍스, 2010년 12월)

서두에서 지적한 오류를 범하는 감이 있지만 올해처럼 자재 시장 전망이 어려운 때도 없었을 것 같다. 특히 경제 전망과 건설 경기 전망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기에 더욱 어렵다. 자재 가격을 크게 놓고 보면, 2008년이 급격한 상승기였고 2009년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하락기였다. 지난해는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기 전망이 불투명했지만 회복에 대한 희망으로 설비 자재 가격이 상반기에 많이 오른 이후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며 하반기에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었다.

결국 금년은 국내 건설 경기가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가 관건이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주요 자재 중에서 강관이나 동관은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한 반면 STS관은 연초 가격대로 내려앉아 상대적으로 상승 잠재력을 안고 있다. 따라서 2008년 하락한 가격을 2009년에 회

복하지 못한 자재들은 관심을 갖고 선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 원켄네트웍스(구 설비넷) 사업총괄 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t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애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자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